

<<유치부>>

제 9 과 나는 하느님을 닮았어요

» 학습 목표

1. 하느님께서 나를 하느님의 모습과 닮게 만드셨음을 안다.
2.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 준비물

어린이 교재, 필기도구

» 시작기도

† 성호경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당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행복하게 교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더욱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 도 입

- 소요시간 : 약 5분

* 손유희 - 나는 쿵!

친구들! 지난 한 주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밝고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재미있는 노래와 율동으로 교리를 시작해 볼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해 보세요.

가사	손동작
나는~ 쿵! 나는~ 쿵!	‘쿵’부분에서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든다.
후라이팬 속에 들어갔더니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큰 동그라미(후라이팬)그리고 걷는 모양 두 팔을 구부려 몸을 흔든다.

냉장고 속에 들어갔더니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네모를 그리고(냉장고) 걷는 모양 두 팔을 구부려 몸을 흔든다.
성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췌, 췌!	손을 집 모양으로 만들고 걷는 모양 입에 손가락 갖다 대며 췌!

- 쿵이 되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해보고 알맞은 가사에 넣어 노래를 불러본다.
 - ‘쿵’이라는 가사 부분에 내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러 볼 수 있다.
- 아주 잘 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주 조용하게 교리할 준비를 하게 되었네요. 췌! 조용히 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는 교리를 해 보아요!

» 진 개

1. 본문 그림 이야기 나누기

♣ 교재 42-43쪽

* 그림을 보며 하느님께서 나를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소중히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친구들! 친구들은 누구를 닮았나요? 아빠를 닮았나요? 엄마를 닮았나요? 할머니를 닮았나요?(어린이들의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아빠를 닮은 친구들도 있고 엄마를 닮은 친구도 있고,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닮은 친구들도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 똑같이 닮은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어린이 교재를 함께 살펴볼까요? 제목을 함께 읽어보아요!(어린이들과 함께 제목을 읽는다.) 아주 잘 읽어주었어요. 제목은 “나는 하느님을 닮았어요.”예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을 닮았어요.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 교재 42쪽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어린이들과 본문 글을 읽는다.) 그래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셨지요. 하느님께서 나를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아주 멋지고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림을 보세요. 어떤 그림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안고 계시네요.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멋지게 만들어주신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나를 사랑해요. 나는 내가 좋아요.

* 교재 43쪽

그림이 네 장 있어요. 어떤 그림인가요?(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아빠와 있는 그림, 할머니 할아버지와 있는 그림, 친구와 있는 그림, 엄마와 있는 그림이 있어요. 하느님께서 나를 소중히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하느님께서 하느님과 닮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 어린이들과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실까요? 함께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 보아요!

“내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43장 4절)

그래요. 하느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대요.

2.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예요!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 교재 44쪽

* 그림을 보며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내 몸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 나눈다.

친구들!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셨어요. 튼튼한 몸도 주셨고 강한 마음도 주셨어요. 지금부터는 하느님께서 주신 튼튼한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스티커를 찾아서 알맞은 자리에 붙여보세요.

* 볼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사진, 재미있는 그림책, 그리고 성경책도 볼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눈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눈은 소중해요!

*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새소리, 전화벨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또 친구의 말소리,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멋진 귀를 선물해 주셨어요. 내 귀는 참 멋져요!

* 만질 수 있어요

나는 만질 수 있어요. 보드라운 곰인형, 따뜻한 친구의 손, 차가운 물.. 나는 또 무엇을 만질 수 있나요?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만질 수 있도록 두 손을 선물해 주셨어요. 내 손은 소중해요!

*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꽃향기, 맛있는 음식의 냄새, 너무 좋은 엄마 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나는 또 어떤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냄새 맡을 수 있도록 멋진 코를 주셨어요.

***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나의 몸으로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보았나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몸으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내 눈도, 코도, 귀도, 손도 모두 소중한데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기쁘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3.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 교재 45쪽

*** 그림을 보며 하느님과 내가 닮은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느님과 나는 어떤 모습이 닮았을까요? 함께 그림을 살펴보아요.

*** 사랑해요**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친구를 사랑해요. 사랑하는 마음은 하느님을 닮았어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내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나는 하느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어린이예요.

*** 용서해주어요**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친구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해주시는 마음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 부지런해요**

나는 아침에 부지런히 일어나 준비를 하고 유치원에 가요. 그리고 주일에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성당에 가요. 하느님께서도 부지런히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나는 부지런한 하느님을 닮았어요.

*** 도와줄 수 있어요**

나는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어른을 보거나 아픈 친구를 보면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는 가족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요. 또 나는 부지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서도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하느님과 닮게 만드셨어요.

» 마무리

오늘은 우리가 모두 하느님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느님과 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과 닮은 것처럼 친구들도 하느님과 닮았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소중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더 하느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요!

» 미침기도

† 성호경

우리를 하느님과 닮게 만들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